교양기초교육연구 제3권 제2호 (2022) pp.119-127

[리뷰]

관계론적 사고를 통해 고전을 재조명하다
-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김 정 녀*

1. 화두(話頭)와 관점(觀點)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돌베개, 2004)은 동양고전에 대한 신영복 선생의 독해와 그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고전 강독 내용을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다. 다루고 있는 동양고전은 모두 11권이다. 『시경(詩經)』, 『서경(書經)』, 『초사(楚辭)』, 『주역(周易)』, 『논어(論語)』, 『맹자(孟子)』, 『노자(老子)』, 『장자(莊子)』, 『묵자(墨子)』, 『순자(荀子)』, 『한비자(韓非子)』 등 주로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의 제자백가(諸子百家) 사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한말(漢末)의 혼란기에 중국에 유입되어 수(隋)나라와 당(唐)나라 때 크게 성행한 불교, 그런 불교를 비판하며 등장한 송대(宋代)의 신유학(新儒學), 그리고 신유학에 대한 비판적 논리로 구성된 명대(明代)의 양명학(陽明學)을 후반 강의에 추가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있었던 사상적 '도전과 응전'(479쪽)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사실 동양고전은 친절한 안내자가 앞에서 천천히 이끌어 준다 해도 해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저자의 고전 강독은 주제와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먼저 책의 서론에서 저자는 화두

* 단국대학교 교수, kjnblue@dankook.ac.kr

(話頭)를 걸어놓았다. 바로 '관계론'(關係論)이다.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사회 구성 원리로서 '관계론'을 제안하고 있다(23쪽). 저자에 따르면 '유럽 근대사의 구성 원리'인 '존재론'은 '개별적 존재를 세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그 개별적 존재에 실체성(實體性)을 부여'하는 반면, '동양의 사회 구성 원리'인 '관계론'은 '개별적 존재가 존재의 궁극적 형식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승인'한다. 즉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關係網)으로 존재한다는 것',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 관계론적 구성 원리이다(23-24쪽). 이러한 관계론적 사고를 통해 동양고전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서구 문명의 구성 원리'로 인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32쪽). 서구 문명의 구성 원리에 대한 반성으로 동양적 구성 원리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고전에 대한 우리의 관점(觀點)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성찰과 모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대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전 독법 전 과정에 관철'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고전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는 것이다. 즉 '과거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것'(24-25쪽)이 고전 독법의 생명이라는 의미이다.

신영복 선생이 『강의』에서 제기한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는 다양하다. 경쟁과 속도를 중시하고 효율성과 경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 남북 분단과 갈수록 증폭되는 전쟁 위험, 극도의 개인주의, 피상적이고 일회적인 인간관계, 사람마저도 상품이 되는 사회,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정직하지 않은 부의 축적 과정, 기계와 인간의 갈등, 인간과 자연의 갈등, 잘못된 규범과 제도, 교육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당면 과제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변화와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라는 의미일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역시 '사회에 관한 근본적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개진된 시기'(138쪽)였다. 저자가 사회 경제적 변동기에 출현한 제자백가(諸子百家) 사상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가 제기한 당면 과제를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

다. 이 글에서는 그중 문명사적 차원의 과제를 중심으로 저자의 동양고전 독법을 살피고자 한다.

2.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론

신영복 선생은 동양고전의 독법에 있어서는 '고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성찰적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순한 고전 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문명의 독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책 곳곳에서 언급한 바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양산하는 물질의 낭비와 인간 소외',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보다 근본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명사적 과제'(507쪽)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저자가 제시한 동양고전 독법의 몇 대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이 「무일」편이 무엇보다 먼저 효율성과 소비문화를 반성하는 화두로 읽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을 반성하는 경구로 읽히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저장하는 탱크 속에 반드시 천적인 메기를 넣는 것이 관습이라고 합니다. 천적을 만난 불편함이 정어리를 살아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무일」편을 통해 불편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씹어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강의』, 75-76쪽)

> ②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의미의 지(知)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식의 혼란을 가져오는 엄청난 정보의 야적(野積)은 단지 인식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폄하하게 할 뿐입니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팔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파는 사회이며, 팔리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폐기되고 오로지 팔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회입니다. 상품 가치와 자본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러한 체제에서 추구하는 지식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는 한 점의 인연도 없습니다. 지(知)는 지인(知人)이라는 의미를 칼같이 읽는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는 무지(無知)한 사회입니다. 무지막지(無知莫知)한 사회일 뿐입니다." (『강의』, 174-175쪽)

③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사회입니다. 상품 사회는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가 상품과 상품의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상품 교환이라는 틀에 담기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교환가치로 표현되고, 인간관계는 상품 교환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 자본주의 사회란 사회의 일반적 부문에 있어서의 인간관계가 일회적인 화폐 관계로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일회적 화폐 관계가 전면화되고 있는 인간관계는 사실상 인간관계가 황폐화된 상태이며, 인간관계가 소멸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지속성이 있어야 만남이 있고, 만남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일 때 부끄러움(恥)이라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지속적 관계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서로 양보하게 되고 스스로 삼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남에게 모질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240-242쪽)

①은 『서경(書經)』의 「무일(無逸)」편을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읽고 있는지를 보인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이 「무일」편을 주공의 사상이나 주나라 시대의 정서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무일」편을 통해 농사일이라는 노동 체험을 외면하고 기성세대를 무지하다고 조롱하며 비생산적 유희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성찰하기를 바란다. 생산보다 소비를 추앙하고,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성의 소외와 물신주의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리라.

②는 『논어(論語)』의 「안연(顔淵)」편에 보이는 공자의 답변을 토대로 지(知)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보충한 것이다. 상품 가치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을 아는 것이 지(知)'라는 공자의 담론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친구, 연애, 결혼 등을 포기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지 않은가.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타인과 가까워져야 나를 보여주는 법인데, 인간을 상품화하고 자본 논리가 인간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현대 사회는 인간을 알 수 없도록 내모는 '무지(無知)한 사회', '무지막지(無知莫知)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③은『맹자(孟子)』의「양혜왕(梁惠王) 上」편에 실린 곡속장(觳觫章)에 대한 저자의 독해를 보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제선왕(齊宣王)은 부들부들 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소를 차마 볼 수 없어서 양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맹자는 제선왕이 '소는 보았으나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36쪽). 즉 제선왕은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으므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만남이 부재(不在)'(237쪽)하는 우리 사회를 성찰한다. 사회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지속성이요, 관계가 지속적일 때 수오지심(羞惡之心), 즉 치(恥)라는 감정도 형성되는 것인데, 사람이 교환가치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정서가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말한다. 식품에 유해 색소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이고,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해도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야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반성해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위에서 인용한 대목 외에도 저자는『노자』를 통해 경쟁, 소비,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을 비판하고(277-283쪽),『장자』를 통해서는 '생산성, 경쟁력, 효율성이라는 신화 속에서' 인간이 도리어 소외되는 현상을 문제 삼는다. 저자는 '기계와 효율성에 대한 반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대 문명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보다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효율성보다는 깨달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복원'할 것을 역설한다(328-333쪽).

이러한 저자의 동양고전 독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식 체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론'의 관점에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자의 문명 비판적 독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삶의 양식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3. 분단과 전쟁, 그리고 '화(和)'의 논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또 다른 '문명사적 과제'로 신영복 선생은 '분단과 냉전 질서의 청산'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있으며, 승전국도 패전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 전쟁이다. 게다가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비단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 극복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자가 '분단과 전쟁'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사적 과제'에 해당한다고 말한 이유이다(166쪽).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저자가 제시한 동양고전 독법의 몇 대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④ "전국시대는 이름 그대로 하루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묵자는 전쟁의 모든 희생을 최종적으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기층 민중의 대변자답게 전쟁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정면에서 반대합니다. 전쟁은 수천수만의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이며, 수많은 사람의 생업을 빼앗고, 불행의 구렁으로 떨어트리는 최대의 죄악입니다. 단 한 줌의 의로움도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따라서 비공(非攻). 즉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사상이지요. 그런 점에서 반전 평화론이야말로 전국시대 최고의 사상이며 최상의 윤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 방식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 공공연히 선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용인하는 한 그것이 어떠한 논리로 치장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기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평화가 없듯이 좋은 전쟁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의』, 379쪽)

⑤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의 의미는 군자는 자기와 타자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타자를 지배하거나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흡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인동이불화(小人同而不和)'의 의미는 소인은 타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지배하고 흡수하여 동화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和)의 논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논리이면서 나아가 공존과 평화의 원리입니다. 그에 비하여 동(同)의 논리는 지배, 흡수, 합병의 논리입니다. 동의 논리 아래에서는 단지 양적 발전만이 가능합니다. 질적 발전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화의 논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의』, 163쪽)

④는『묵자(墨子)』의「비공(非攻)」편에 드러난 묵자의 '반전 평화론'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보인 것이다. 묵자는 천하의 군자들이 수만 명을 살인하는 전쟁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송하고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을 개탄하였는데, 저자 역시 전쟁은 '단 한 줌의 의로움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군사적 패권주의가 당장은 부강의 방책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패망의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382쪽)는 묵자의 '반전 평화론'을 저자는 '전국시대 최고의 사상이요, 최상의 윤리'라고 극찬한다. 또한 저자는 전쟁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전쟁이 이용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에 의존해온 지난 역사를 비판하며 전쟁과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383쪽). '나쁜 평화가 없듯이 좋은 전쟁 또한 있을 수 없'다는 인용문 마지막 구절은 전쟁의 부당함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⑤는『논어(論語)』의「자로(子路)」편에 제시된 화이부동(和而不同)에 대한 저자의 독해를 보인 것이다. 저자는 '화이부동'에 대한 일반적 해석과 달리 화(和)와 동(同)을 대비적으로 해석한다(162쪽). 동을 윤리적 수준에서 바라보아서는 새롭게 재조명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즉, '화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로, '동은 획일적 가치만을 용납하는 지배와 흡수합병의 논리'로 이해해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사의 정점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패권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인데(164쪽),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가 바로 존재론의 논리이며 지배, 흡수, 합병이라는 동(同)의 논리'(164쪽)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론은 어떤 논리적 토대를 갖추고 있을까?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로 대립'하고 있고, 지금까지 '흡수합병이든 적화통일이든 기본적으로 동(同)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저자의 진단(165쪽)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론은 분명해진다. '공존과 평화의 논리로 통일 과정을 이끌어가'려면 '동의 논리가 아닌 화의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 저자가 '화'의 논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화'의 논리는 남북 통일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구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화의 논리'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세계사적 과제'(166쪽)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4. 새로운 관점 모색을 위해

지금까지 『강의』에서 제기된 문명사적 차원의 두 과제를 중심으로 신영복 선생의 동양고전 독법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관계론적 관점에서 고전을 재조명하였으며, '자본주의 체제', '분단과 전쟁'이라는 세계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찰적 관점'을 아울러 제안하였다. 새로운 문명과 사회 구성의 원리로서 제시된 '관계론'과 '화(和)의 논리'는 자본주의 문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근본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신영복 선생의 사상은 좀 더 많은 자리에서 연구되고, 토론의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느라 빠뜨린 고전 독법들도 많다. 관계론의 최고 형태를 보여준『주역』, '세상 만물은 상대적인 것이며 상호 전화(轉化)'한다는『노자』, 훌륭한 법과 제도가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는『순자』,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응 방식을 모색한『한비자』 등도 관계론적 사고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추후 동양고전에 나타난 '관계론'을 범주화하여 그 구체적 양상을 살필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신영복 선생이 동양고전을 통해 관계론을 재조명하였듯 이제 우리도『강의』에 대한 재조명을 할 때가 되었다. 저자가 제시한 '화두'와 '관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성찰하고, 미래 사회 구성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원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강의』를 읽은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한다.